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 6,000년 기념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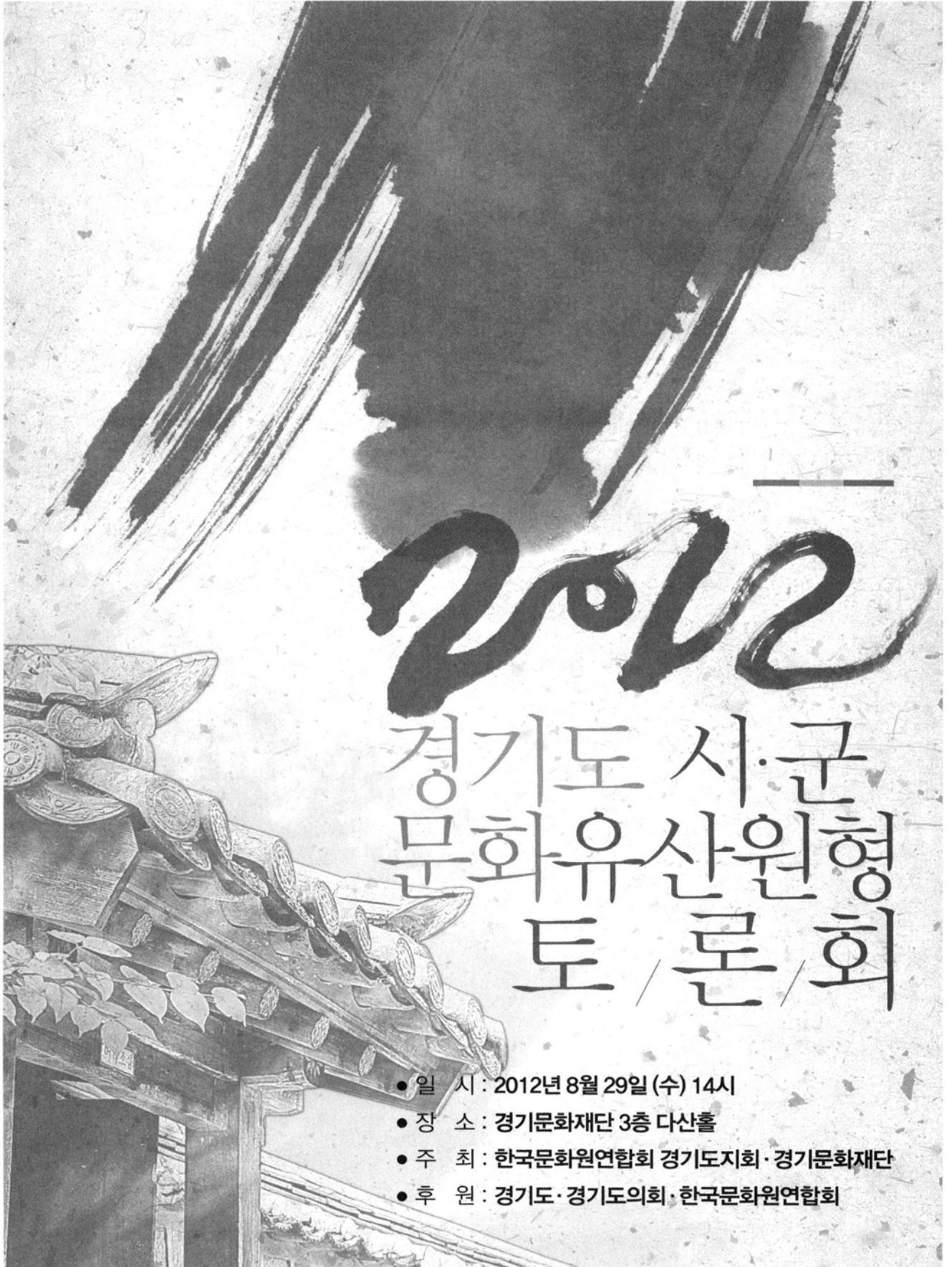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문화재단



2012

경기도 시·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 일 시 : 2012년 8월 29일 (수) 14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주 최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경기문화재단
- 후 원 : 경기도·경기도의회·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600주년 기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유산원형토론회



바야흐로 세계사적 흐름은 세계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있는 동, 서냉전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와 민족 고유의 전통을 인정하는 문화상대주의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미 세계는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범주가 아닌 동등한 문명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기를 거쳐 이제야 비로소 지역의 정체성, 다양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획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면면히 흐르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다시 되집어보고, 그것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다시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본 토론회가 있습니다.



역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경기도의 역사가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지점이 밝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역사의 흔적이 현대적 의미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며, 지역의 특색으로 브랜드화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획이 바로 '문화원형토론회'입니다. 문화원형은 그 지역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지역민의 정서가 스며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거쳐 그것에 담긴 함축적 의미가 더 확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퇴색되기도 하면서 면면히 그 지역과 함께 살아 숨쉬어 온 것으로 지역 정체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원형을 되살리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쩌면 그동안 각 문화원이 노심초사하면서 조사, 연구, 발굴해 온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각 개별 시, 군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긴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도록

록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과 함께 긴 시간 고민하고 토론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는 5개 지역 문화원, 즉, 시흥시, 구리시, 의왕시, 광명시 그리고 파주시의 관계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토론하고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다시 수정, 보완한 결과를 오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각 시, 군의 향토사학자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토론회가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한 발 성큼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만들어 주신 경기문화재단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정 상 종

여 백



경기600주년 기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유산원형토론회



오늘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문화원 연합회경기도지회 정상중 회장님과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韓流)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도 전례 없이 활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문화산업의 풍부한 원천이 바로 우리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요즈음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오래된 한반도 문화교류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위상에 반해 정작 경기문화의 원천소재인 원형에 대한 연구와 조형(造形)작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세계적 추세나 경기도의 위상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문화의 원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다섯 가지 사례발표는 모두 31개 시·군의 문화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해당 문화원의 사무국장님들이 해주시는 것이라서 더욱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연구되어 발표된 해당 지역의 문화상징들이 경기문화관광과 문화예술산업의 좋은 소재로 활용되어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에도 도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일선 문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 및 발표자, 토론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엄 기 영

여 백



행사내용

개회식 14:00~14:30

사회 : 최영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사무처장

1부 발제 및 사례발표 14:30~16:05

● 기조발제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사례발표

1)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청령 도시 브랜드화

발표 : 이효성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2)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부제 “동구릉 문화제”

발표 :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3)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발표 : 하세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4) 모락산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발표 : 오세진 [의왕문화원 사무국장]

5)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발표 :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2부 논평 및 토론 16:15~18:00

좌장 :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 :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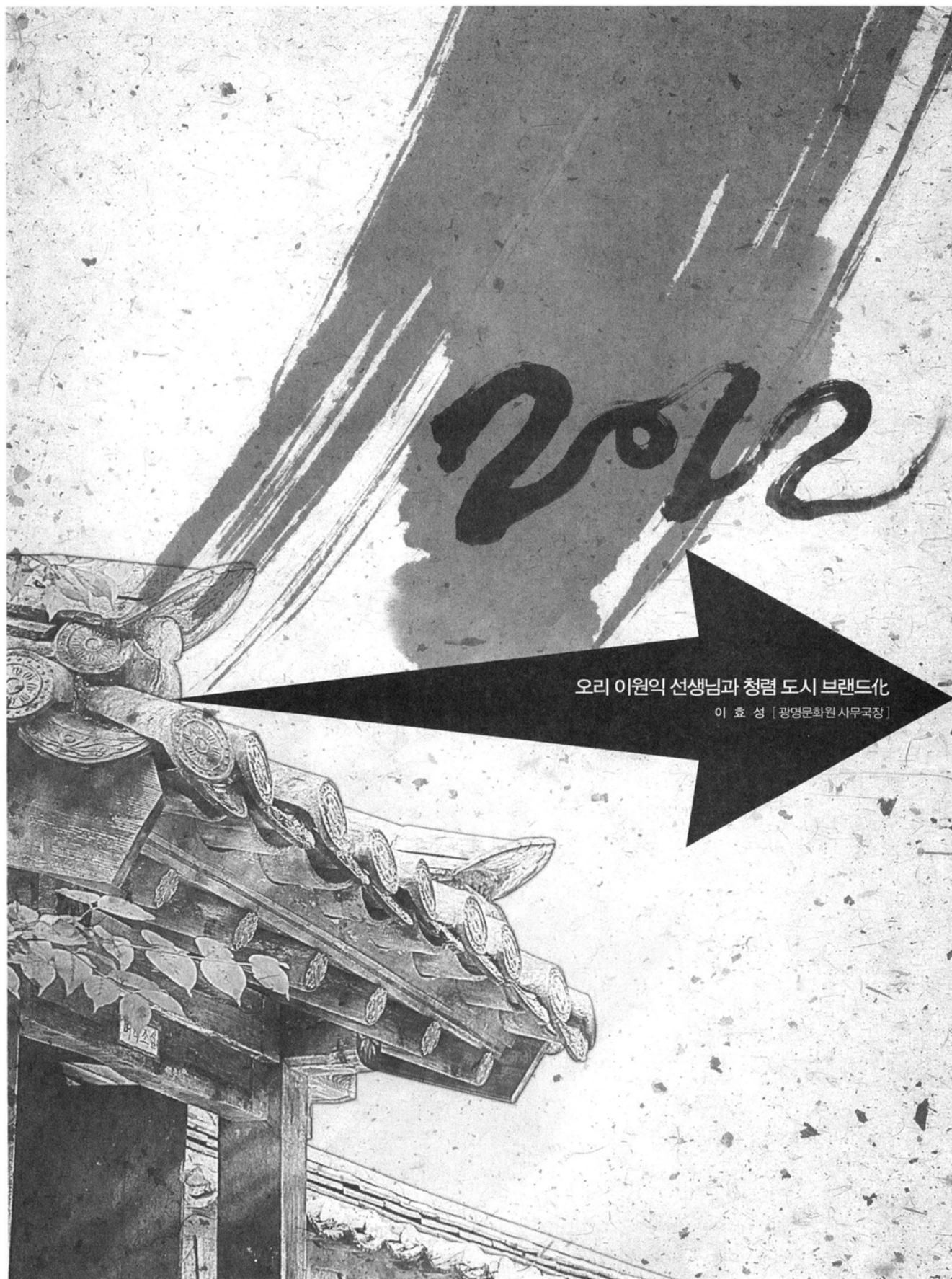
여 백



목 차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림 도시 브랜드化	No. 013
이효성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No. 025
부제 “동구릉 문화제”	
윤승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No. 043
하세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모락산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No. 053
오세진 [의왕문화원 사무국장]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No. 065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논평 및 토론	No. 081

여 백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청령 도시 브랜드화

이 효 성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청림 도시 브랜드化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이호성

목 차

1. 사업개요
2. 기획의도
 - 추진배경
 - 추진목적
3. 사업내용
 - 세부내용
 - 기추진 사업
 - 세부추진계획
4. 활용방안
5. 기대효과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렴도시 브랜드化
- 기 간 : 2012년 ~ 계속 전개
- 대 상 : 광명시민, 전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학생
- 주 칙 : 광명문화원, 광명시, 시민단체

2. 기획의도 - 추진배경



청백리 (清白吏)

40년 (선조, 광해군, 인조)
동안 4번의 영의정

임란 때
군량미/ 병력
동원 담당

이원익
(1547-1634)

유배생활

생사당 (生祠堂)

대동법 (大同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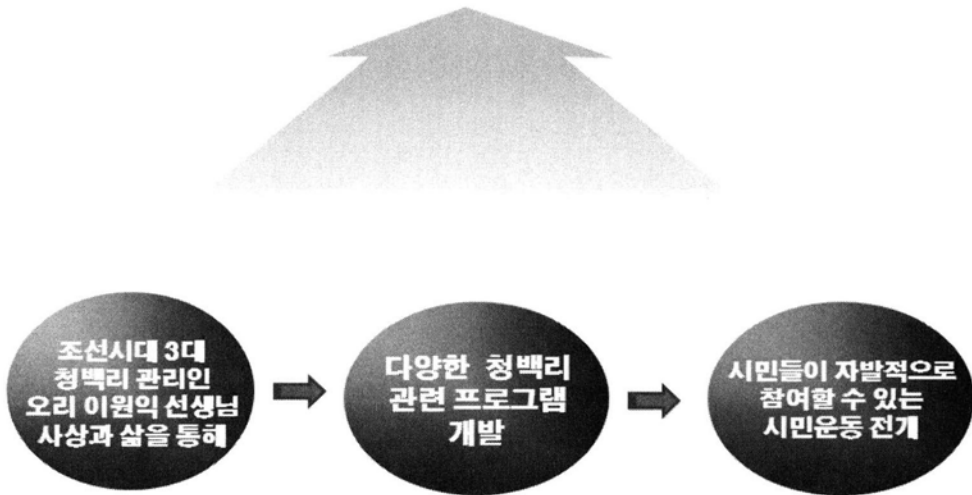
안주의 뽕나무

관감당 (觀感堂)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조선시대
최고의 실무관료

2. 기획의도 - 추진목적

대표 청렴도시 및 청백리 센터 지향



3. 사업내용 - 세부내용

이원익 생애 체험관 운영

이원익 선생님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생애 체험관을 운영하여 이원익 선생님의 삶과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함.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원익 기념관에서 상시 교육 실시



충현박물관(관광당, 영우 등)



이원익 묘소



설월리 마을



오리 기념관

3. 사업내용 - 세부내용

청백리상 제정 운영

○ 광명문화원 및
공신력 있는 시민
단체 등이 주도하
는 전국단위의 청
백리상 제정 및
운영

○ 대상을 공무원
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단체 및 공공
기관 직원들까지
대상 확대

시민 신문고 운영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철산동 문
화회 거리에 한구
석에 시민의 목소
리를 수렴할 수
있는 시민 신문고
를 제작하여 운영

○ 한 달에 한 번
문화공연과 함께
공직자들이 시민
들과 함께 하는
자리 마련



3. 사업내용 - 세부내용

청백리 시민운동 전개

○ 아나바다 운동
및 문화장터 운영

○ 공정무역 제품
구입하기 운동

○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 전개

○ 이원익 훈계
34조 실천운동
전개



어린이문화장터



시민회관에 입점한
공정무역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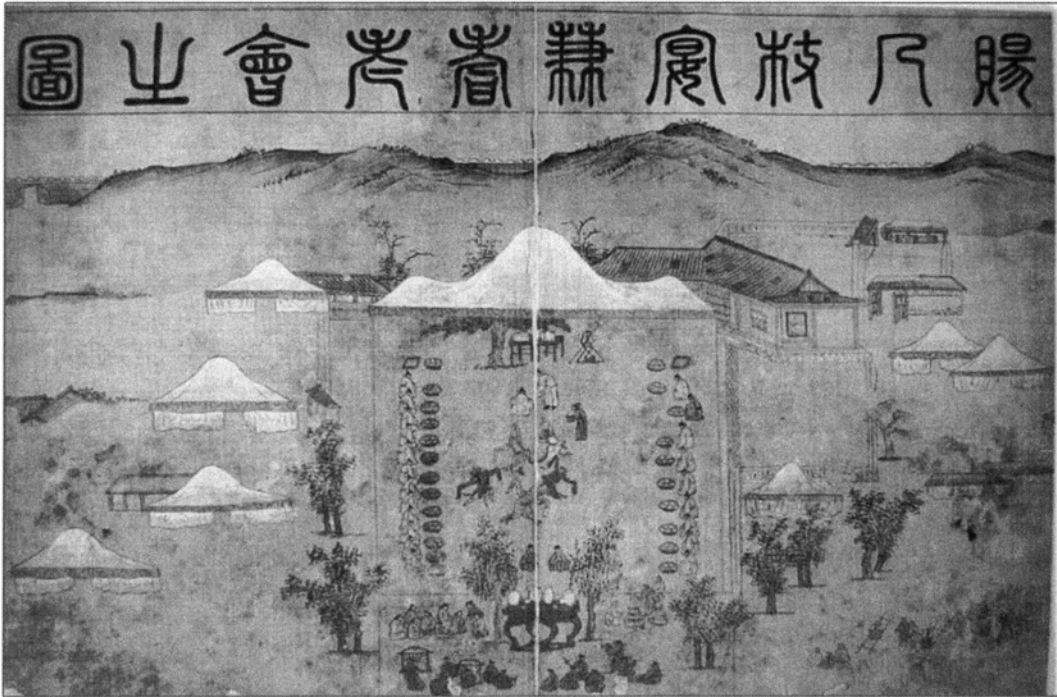
이원익 및 청백리 콘텐츠 개발

○ 이원익계장점기로
연도 재현 행사

○ 오리 이원익
인형극 제작 및 상연

○ 청렴연극 제작을
통한 순회공연 실시

○ 이원익 일화 UCC
제작 보급



이원익사경장경기로연도: 이원익의 77세 생일을 맞이하여 인조가 이원익에게 지팡이, 의자 등을 하사하고 연 잔치의 모습 기록한 그림과 글

3. 사업내용 - 기추진 사업



오리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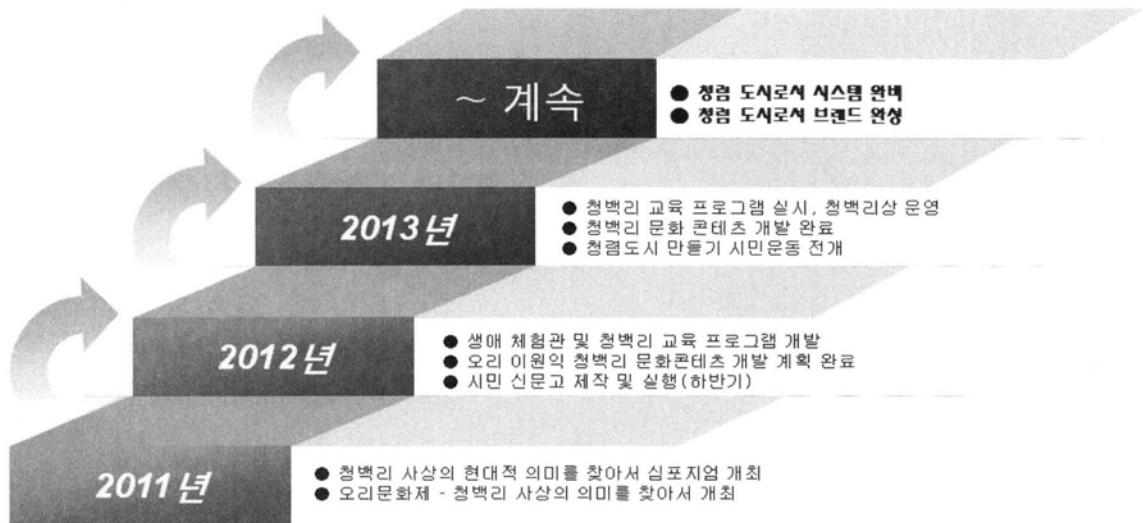


이원익 관련 출판물(소설, 만화)



오리 이원익 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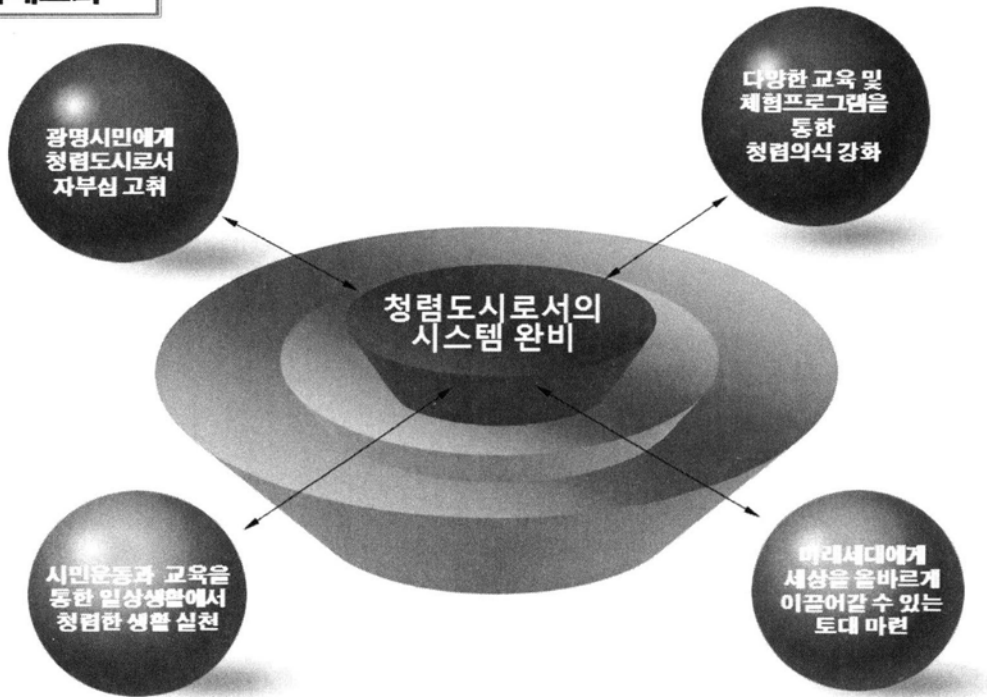
3. 사업내용 - 세부추진계획



4. 활용방안

청백리 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학생 대상으로 교육
이원익 생애 체험관 개설	신규 공무원들 현장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청백리상 운영	광명문화원 및 시민단체 연계하여 실시
시민 신문고 운영	시민들의 의견을 광명시 정책으로 반영
이원사궐장경기 로연도 재현행사	관내 존경의 대상이 되는 77세 노인 분을 대상으로 실시
인형극, 청렴연극 제작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연

5. 기대효과



오리 이원익 선생님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훈

無怨於人
無惡於己
志行上方
分福下比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령 도시 브랜드화

이 효 성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렴 도시 브랜드화



이 효 성 [광명문화원 사무국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렴 도시 브랜드화

기 간 : 2012년 ~ 계속 전개

대 상 : 광명시민, 전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주 최 : 광명문화

→ 2 기획의도

1) 추진배경

오리 이원의 선생님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40년간 정승으로 있었고, 6번이나 영의정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청렴결백한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모범을 모인 조선시대 3대 청백리(황희, 맹사성, 이원익)중의 한분입니다.

광명시에는 오리 이원의 선생님의 묘소를 비롯하여 인조로부터 하사받은 집인 관감당, 영정을 모신 영우, 일생을 기록한 신도비와 선생님이 남긴 많은 글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설월리라고 하는 마을은 오리 이원의 선생님이 눈오는 날 달빛 아래서 산책을 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낭만적인 지명이다.

광명시는 오리 이원의 선생님의 삶과 뜻을 이어받기 위해 올해로 21년째 진행되고 있는 오리문화제를 개최하여 청백리 사상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오리 이원의 선생님의 다양한 자료와 삶을 배울 수 있는 이원의 기념관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경기도 자체 평가에서 광명시는 최근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리 이원의 선생님의 고장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광명문화원은 기존에 만화 이원익, 소설 이원익, 이원익

인형극 등 다양한 콘텐츠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 도시로써의 광명시 브랜드화 작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2) 추진목적

조선시대 3대 청백리 관리인 오리 이원의 선생님의 사상과 삶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광명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청렴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함.

→ 3 사업내용

1) 세부내용

● 충현박물관(관감당) → 오리 이원의 묘소 → 설월리 → 이원의 기념관 등을 이용한 이원의 생애 체험관 운영 및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백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 개발

－ 공무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 현재 이원의 선생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충현박물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통예절학교 수업을 확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있는 청렴교육 실시

● 광명문화원 및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전국단위의 청백리상 제정 및 운영

※ 광명시는 2011년도에 의원발의로 청백리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광명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청백리상에 대한 운영 주체를 과감하게 광명문화 원과 시민단체 등에 이

양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광명시에서 전국단위로 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철산동 문화의 거리 한구석에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민 신문고를 제작하여 운영.

– 한 달에 한 번 문화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백리 정신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

– 검소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아나바다 운동 및 장터 운영
–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 전개(단체장들의 현장 자원봉사 확대)
– 광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원익 선생이 손자인 이덕기에게 준 34조 훈계서 실천운동

● 오리 이원익 및 청백리 문화 콘텐츠 개발

– 이원익사궤장겸기로연도(77세 생일을 맞아 인조가 이원익에게 하사한 지팡이, 의자, 잔치 등을 묘사한 그림 -) 재현 행사
– 오리 이원익 인형극 제작(현재 제작중)
– 청렴 연극 제작을 통한 순회 공연 실시
– 오리 이원익 선생의 일화에 대한 UCC 제작 보급

2) 특이사항(기추진사업)

● 소설이원익, 만화 이원익 등 출판물 발간
● 오리 문화제 개최 : 올해로 21회째로 이어져 옴
● 오리이원익 인형극 제작

3) 세부추진계획

● 2011년

– 청백리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서 심포지엄 개최(기실시)

● 2012년

– 관감당 - 이원익 묘소 - 이원익 기념관 생애체험관 및 청백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청백리상 운영조례 개정 및 계획 완료
– 오리 이원익 및 청백리 문화콘텐츠 개발 계획 완료
– 시민 신문고 제작 및 실행(하반기)

● 2013년

– 전국단위의 청백리 교육프로그램 실시, 청백리상 운영
– 청백리 문화콘텐츠 개발 완료
– 청렴도시 만들기 시민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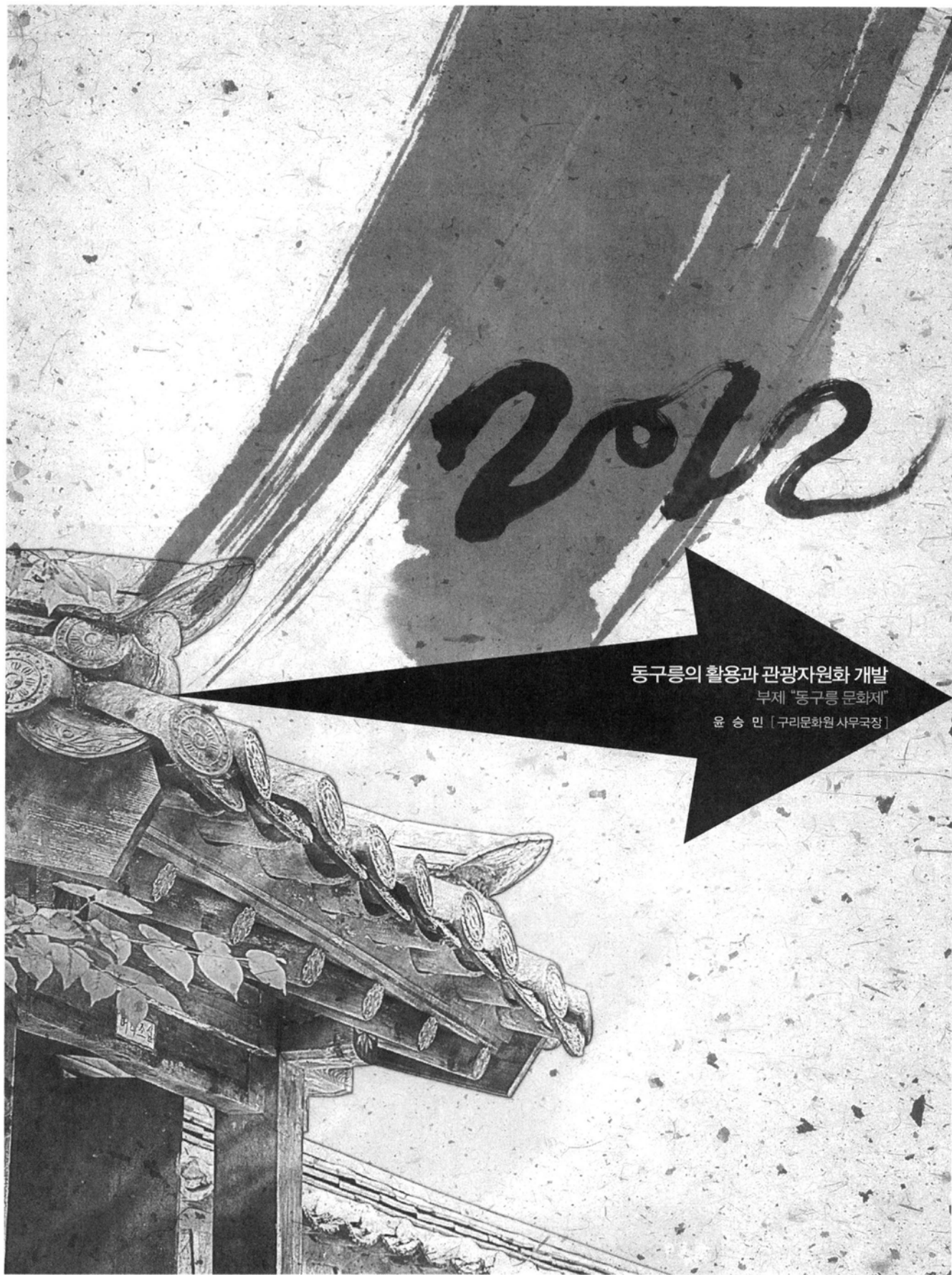
➔ 4 활용방안

● 청백리 교육프로그램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 이원익 생애체험관 개설
● 청백리상 운영 : 광명문화원 주관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 시민 신문고 운영
● 오리문화제에서 이원익사궤장겸기로연도 재현행사 실시
● 인형극, 청렴연극, UCC 제작 :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상연

➔ 5 기대효과

● 광명시민에게 청렴 도시로서 광명시에 대한 자부심 고취
●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식 강화
● 시민운동과 교육을 통한 청렴 도시로서 광명시의 시스템 완비
● 청소년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함양하여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여 백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부제 "동구릉 문화제"
윤 승 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 지역문화원형 토론회

지역명: 구리시
담당자: 윤승민

구리시 소개



- 시승격— 1986. 1. 1
- 면 적— 33.30 km² (경기도의 0.31 %)
- 인 구— 2010년 11월 30일 현재 196,237명



구리시 문화재



구분	대표 문화재	보유수
국가지정	동구릉	4개
	아차산일대보루군(阿且山一帶堡壘群)	
	석장	
	명빈묘	
도지정	갈매동도당굿	4개
	자수정	
	나만갑선생 신도비	
	구리아차산 3층 석탑	
비지정	고구려 보루성	9개
	아차산 고구려 유물 등	



동구릉



아차산일대 보루군



명빈묘



갈매동도당굿



구리아차산 3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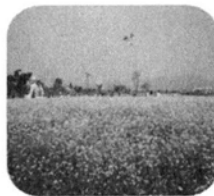


아차산 고구려 유물

구리시 축제



동구릉 문화제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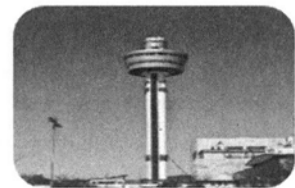
구리시 관광지



동구릉



아차산 대장간 마을



구리타워

사업개요

-사업명 :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부제 “동구릉 문화제”

-기 간 : 5월 중(3일간)

-장 소 : 동구릉

-주 최 : 구리시

-주 관 : 구리문화원



동구릉 입구



기획의도

1) 추진배경

- 동구릉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포함한 9릉 17위가 모여져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왕릉군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가 인정되어 2009년 6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이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사이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3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이제는 우리의 원형유산을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존에 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문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태조 이성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표지석

기획의도

2) 추진목적

-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릉은 70대 어르신들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 까지 매해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다. 구리시민이라면 1년 한두 번 이상은 꼭 찾는 지역명소이다. 그만큼 지역주민의 애정이 각별한 곳이고 자랑거리다.
-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이제는 국내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곳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의 원형유산을 잘 보존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 500년 전의 정신문화가 현재에도 전수되고 있는 것은 원형유산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세계인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원형유산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동구릉 지도



건원릉 정자각

사업내용

1) 세부내용

-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방안 연구(신규)
- 동구릉의 활용방안 발표
- 전통행사인 어가행렬 재연 사업 - 기존 구리시, 문화원 사업
- 시민백일장 사업 - 기존 문화원 사업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동구릉 만들어 가기 사업
- 세계인과 함께하는 조선시대의 체험사업(신규)
- 도전! 동구벨 사업(신규)
-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 구리시 예정 사업



어가행렬 재연 사업



사업내용

2) 추진방법

-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사업추진 - 구리문화원
- 전통행사 재연 어가행렬 사업 - 구리시, 구리문화원
- 시민백일장 사업 - 구리문화원
-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동구릉 만들어가기 사업 - 구리문화원
- 세계인과 함께하는 체험사업 - 구리문화원
- 도전! 동구벨 사업 - 구리문화원



시민백일장

3) 특이사항:

- 도시 정비사업 계획수립(동구릉 주변) - 구리시(2010년)
-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 - 구리시(2011년)
-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 구리문화원(2012년)



동구릉 역사문화 박물관

활용방안

□ 학술제 개최

- 동구릉 문화제와 연계하여 동구릉 재실에서 개최된다. 보존과 활용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 국내의 사례를 살펴 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민, 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제

□ 전통행사 재연 사업

- 구리시의 중요 도로구간을 거쳐 가는 어가행렬은 구리시체육관을 출발하여 2.8km 거리를 한 시간 가량 도보로 진행된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조선시대 후기 양식으로 왕과 세자 선발 대회와 행렬단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고장의 원형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어가행렬

활용방안

□시민백일장 사업

-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함께 하는 백일장은 매년 5월 동구릉 문화제와 함께 동구릉 원릉에서 진행되며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 사진, 비디오 부분에서 실력을 겨루고 이후 입상작은 시청과 동구릉에 전시되게 된다.



시민백일장 전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동구릉 만들어가기 사업

-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첫해는 “내가 바라보는 동구릉”이란 주제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다음해에는 “조선시대”라는 연극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극제 개최

활용방안

□세계인과 함께 체험사업

- 전통혼례체험, 전통한복 포토존, 전래놀이 체험, 가훈 써주기, 흥겨운 우리가락 등의 부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해외관광객들에게 원형유산인 동구릉을 관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전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전 동구벨 사업

-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이다.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추진계획

1) 단계별 사업계획

시행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2012	협의회 구성	구리시청, 구리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사업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계획 작성	
2013	신청 및 공모	학교, 단체, 일반 신청 및 접수	
	사업시행	행사실시	
	동영상 배포 및 설문조사 실시	참가자 및 일반에 영상 제공 행사 전후에 대한 만족감 조사	

추진계획

2) 추진일정

시행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시기
2012	협의회 구성	구리시청, 구리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10월
	사업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계획 작성	12월
2013	사업설명회	· 사업별 설명회 개최	1~4월
	공연 및 기획단 구성	· 공연팀, 기획팀 구성	
	유관단체 회의	· 관내 기관단체 초청장 및 공문발송 · 참여기관 회의	
	동구릉 문화제	1일차 - 동구릉 학술제 개최 - 다문화가족 연극대회 개최 2일차 - 시민백일장 개최 - 전통공연 개최 - 어가행렬 개최 3일차 - 전통체험부스 운영 - 도전 동구릉 개최	5월
	동영상 제작 및 설문조사	· 행사성과 영상 발표회 · 시민 만족도 평가회	6월

기대효과

-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인식 재고
- 시민통합의 장 마련(학생, 다문화가족, 시민, 관청 등)
- 지역의 문화축제를 넘어 해외관광객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구릉의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폭을 넓혀 우리고장의 자긍심은 물론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동구릉의 외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동구릉의 발전방향

-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보통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밖의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동구릉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해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정신유산과 원형유산의 조화

조선왕조 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정신문화를 후세에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21세기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보호의 필요성과 자원화의 인식을 공유한다면 충분히 가능이 있을 것이다.

구리문화원에서 제시하는 동구릉의 발전방향

- 첫째, 동구릉(원형유산)에 대한 충실한 배경지식 확보.

지역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최근 발간한 “동구릉 안내책자”로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기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의 회원들로 하여금 학교방문교육 및 동구릉 현지에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원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 문화축제로의 전환.

구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동구릉 문화제”다. 주행사인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2가지의 부대행사가 어우러져 볼거리와 체험의 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거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원형유산에 대한 배경지식 전파와 함께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리문화원에서 제시하는 동구릉의 발전방향

- 셋째, 동구릉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캐릭터 사업 등) 개발.

동구릉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동구릉에 대한 이미지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구리시청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동구릉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의 존재로, 내·외국인에게는 세계문화유산의 진면목과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사업예산

(1) 총괄표

(단위:원)

사업명	국비	자체비	기타
학술제	30,000,000	0	0
연극제	8,000,000	0	0
체험마당	10,000,000	0	0
도전! 동구별	5,000,000	0	0
합계	53,000,000	0	0

(2) 학술제 산출내역

(단위:원)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30,000,000	
학술제	12,650,000	12,650,000	• 발표자 원고료 및 발표비 : 2,500,000 • 자료집 : 9,150,000 • 회의비 : 1,000,000 • 행사다과 : 500,000
사진전	14,000,000	14,000,000	• 동구릉 사진집 제작 : 6,000,000 • 사진전 : 8,000,000
행사진행 및 홍보비	3,350,000	3,350,000	• 현수막 : 1,300,000 • 홍보물 : 550,000 • 기록비 : 1,000,000 • 기획 및 행사진행비 : 500,000

(3) 연극제 산출내역

(단위:원)

사업명	계	국 비	산출기초
		8,000,000	
예절 마당극 공연	8,000,000	8,000,000	-공연비(음향. 조명. 무대제작 포함) 2회공연 X 3,500,000 = 7,000,000 -홍보현수막 3개*55,000 165,000 -마당극 리플렛 550,000 -마당극 비디오 220,000 -다과, 음료 65,000

(4) 전통체험마당 사업

(단위:원)

사업명	계	국 비	산출기초
		10,000,000	
전통 체험마당	전통혼례체험	2,000,000	-의상대여, 물품구입 등
	조선의상체험	2,000,000	-의상대여, 즉석사진 제공
	전통다도체험	2,000,000	-다도, 다식 재료비, 물품구입 등
	전통탁본체험	2,000,000	-탁본구입, 재료구입 등
	무대설치비	2,000,000	-무대, 음향, 부스, 의자 등

(5) 도전! 동구벨 사업

(단위:원)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5,000,000	5,000,000	
도전! 동구벨	회의 및 심사	1,000,000	-심사 및 회의비
	행사진행	1,500,000	-우편료, 증식비, 화물비 등
	물품구입	1,500,000	-상장, 시상품, 상패제작 등
	홍보 및 기록	1,000,000	-현수막, dvd 제작

감사합니다

경기도 지역문화원형 토론회



윤 승 민 [구리문화원 사무국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부제 “동구릉 문화제”

기 간 : 5월 중(3일간)

장 소 : 동구릉

주 최 : 구리시

주 관 : 구리문화원

→ 2 기획의도

1) 추진배경

동구릉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포함한 9릉 17위가 모여져 있는 국내최대 규모의 왕릉군이다. 이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가 인정되어 2009년 6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사이며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3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원형유산을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존에 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문화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2) 추진목적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릉은 70대 어르신들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까지 매해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다. 구리시민이라면 1년 한두 번 이상은 꼭 찾는 지역명소이다. 그만큼 지역주민의 애

정이 각별한 곳이고 자랑거리다.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이제는 국내에 제한되지 않고 세계에서 도 관심을 갖는 곳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존의 원형유산을 잘 보존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500년 전의 정신문화가 현재에도 전수되고 있는 것은 원형유산이 잘 보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세계인과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원형유산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3 사업내용

1) 세부내용

-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방안 연구
- 동구릉의 활용방안 발표
- 전통행사인 어가행렬 재연 사업 - 기존 구리시, 문화원 사업
- 시민백일장 사업 - 기존 문화원 사업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동구릉 만들어 가기 사업
- 세계인과 함께하는 조선시대의 체험사업
- 도전 동구벨 사업
-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 구리시 예정 사업

2) 추진방법

-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사업추진 - 구리문화원
- 전통행사 재연 어가행렬 사업 - 구리시
- 시민백일장 사업 - 구리문화원

-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동구릉 만들어가기 사업 - 구리문화원
- 세계인과 함께하는 체험사업 - 구리문화원
- 도전! 동구벨 사업 - 구리문화원

2) 특이사항

- 도시 정비사업 계획수립(동구릉 주변) - 구리시(2010년)
-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 - 구리시(2011년)
- 동구릉 안내책자 발간 - 구리문화원(2012년)

3) 활용방안

- 학술제 개최 - 동구릉 문화제와 연계하여 동구릉 재실에서 개최된다. 보존과 활용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통행사 재연 사업 - 구리시의 중요 도로구간을 거쳐 가는 어가행렬은 구리시체육관을 출발하여 2.8km 거리를 한 시간 가량 도보로 진행된다.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조선시대 후기 양식으로 왕과 세자 선발대회와 행렬단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고장의 원형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 시민백일장 사업 - 초등학교부터 일반시민까지 함께 하는 백일장은 매년 5월 동구릉 문화제와 함께 동구릉 원릉에서 진행되며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 사진, 비디오 부분에서 실력을 겨루고 이후 입상작은 시청과 동구릉에 전시되게 된다.

-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동구릉 만들어가기 사업 -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첫째 “내가 바라보는 동구릉”이란 주제로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해에는 “조선시대”라는 연극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세계인과 함께 체험사업

전통혼례체험, 전통한복 포토존, 전례놀이 체험, 가혼 써주기, 흥겨운 우리가락 등의 부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해외관광객들에게 원형유산인 동구릉을 관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전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도전 동구벨 사업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을 바로 알기위한 사업이다.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해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 4 추진 계획

1) 총괄표

시행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2012	협의회 구성	구리시청, 구리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사업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계획 작성	
2013	신청 및 공모	학교, 단체, 일반 신청 및 접수	
	사업시행	행사실시	
	동영상 배포 및 설문조사 실시	참가자 및 일반에 영상 제공, 행사 전후에 대한 만족감 조사	

2) 추진일정

시행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시기
2012	협의회 구성	구리시청, 구리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10월
	사업계획 수립	분야별 세부계획 작성	12월
2013	사업설명회	사업별 설명회 개최	1~4월
	공연 및 기획단 구성	공연팀, 기획팀 구성	
	유관단체 회의	● 관내 기관단체 초청장 및 공문발송 ● 참여기관 회의	
	동구릉 문화제	1일차 ● 동구릉 학술제 개최 ● 다문화가족 연극대회 개최	5월
		2일차 ● 시민백일장 개최 ● 전통공연 개최 ● 어가행렬 개최	
		3일차 ● 전통체험부스 운영 ● 도전 동구별 개최	
	동영상 제작 및 설문조사	● 행사성과 영상 발표회 ● 시민 만족도 평가회	6월

→ 5 기대효과

- 동구릉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인식 재고
- 시민통합의 장 마련(학생, 다문화가족, 시민, 관청 등)
- 지역의 문화축제를 넘어 해외관광객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구릉의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폭을 넓혀 우리고장의 자긍심은 물론 동구릉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동구릉의 외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6 동구릉의 발전방향

●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협력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보통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밖의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동구릉 또한 예외는 아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해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정신유산과 원형유산의 조화

조선왕조 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정신문화를 후세에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21세기에 맞는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보호의 필요성과 자원화의 인식을 공유한다면 충분히 가능이 있을 것이다.

→ 7 구리문화원에서 제시하는 동구릉의 발전방향

첫째, 동구릉(원형유산)에 대한 충실한 배경지식 확보.

지역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원에서 최근 발간한 “동구릉 안내책자”로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기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의 회원들로 하여금 학교방문교육 및 동구릉 현지에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운영하여 지역문화원형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 문화축제로의 전환.

구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동구릉 문화제”다. 주행사인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2가지의 부대행사가 어우러져 볼거리와 체험의 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거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구리문화원에서는 원형유산에 대한 배경지식 전파와

함께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 동구릉에 대한 콘텐츠(캐릭터 사업 등) 개발.

동구릉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동구릉에 대한 이미지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문화원, 동구릉 관리사무소, 구리시청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동구릉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의 존재로, 내·외국인에게는 세계문화유산의 진면목과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 8 사업예산

1) 총괄표

(단위: 원)

사업명	국비	자체비	기타
학술제	30,000,000	0	0
연극제	8,000,000	0	0
체험마당	10,000,000	0	0
도전! 동구벨!	5,000,000	0	0
합계	53,000,000	0	0

2) 학술제 산출내역

(단위: 원)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30,000,000	
학술제	12,650,000	12,650,000	- 발표자 원고료 및 발표비: 2,500,000 - 자료집: 9,150,000 - 회의비: 1,000,000 - 행사다과: 500,000
사진전	14,000,000	14,000,000	- 동구릉 사진집 제작: 6,000,000 - 사진전: 8,000,000
행사진행 및 홍보비	3,350,000	3,350,000	- 현수막: 1,300,000 - 홍보물: 550,000 - 기록비: 1,000,000 - 기획 및 행사진행비: 500,000

3) 연극제 산출내역

(단위: 원)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8,000,000	
예절 마당극 공연	8,000,000	8,000,000	- 공연비(음향, 조명, 무대제작 포함) 2회공연×3,500,000 = 7,000,000 - 홍보현수막 3개×55,000 = 165,000 - 마당극 리플렛 550,000 - 마당극 비디오 220,000 - 다과, 음료 65,000

4) 전통체험마당 사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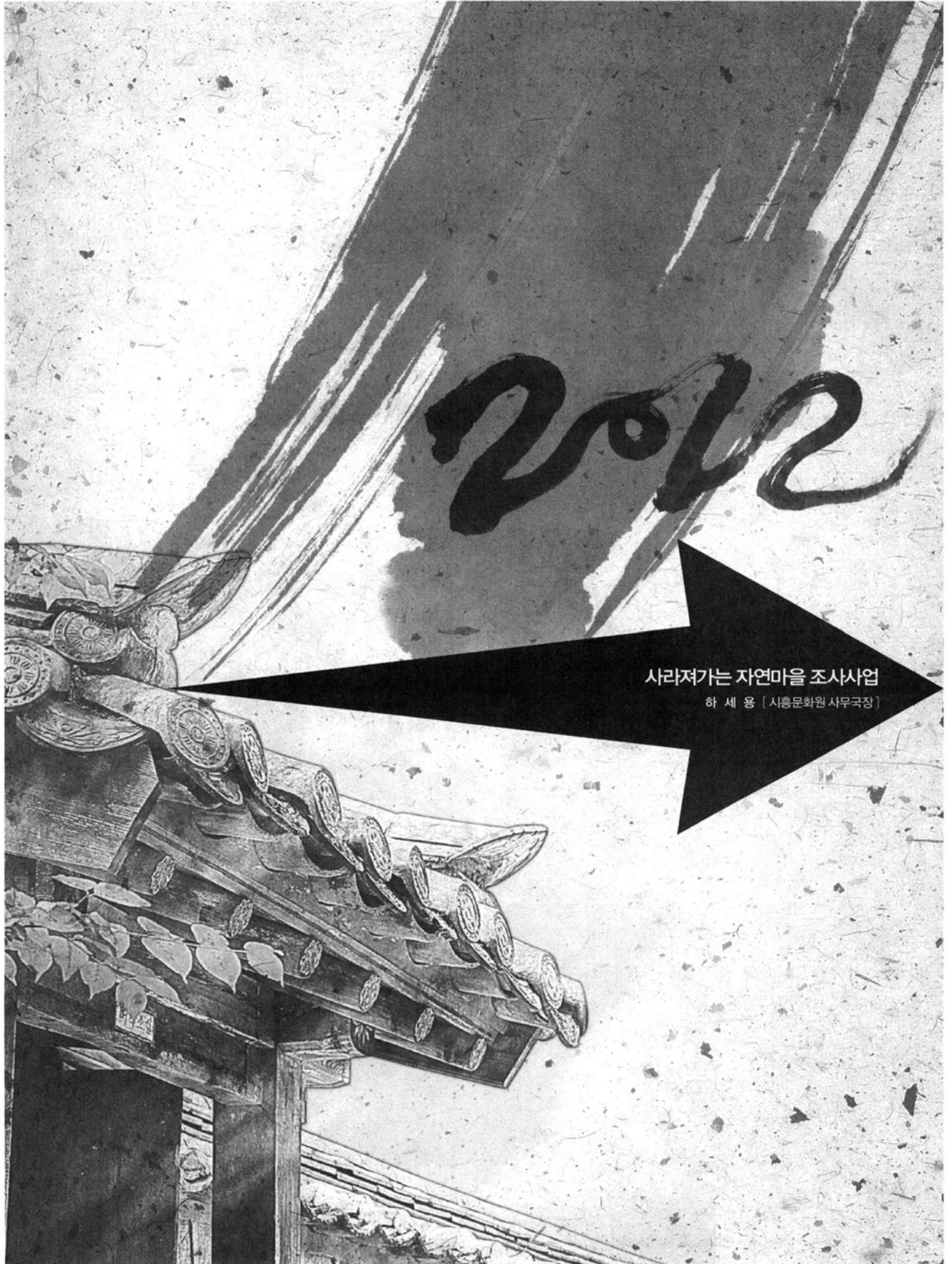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10,000,000	
전통 체험마당	전통혼례체험	2,000,000	의상대여, 물품구입 등
	조선의상체험	2,000,000	의상대여, 즉석사진 제공
	전통다도체험	2,000,000	다도, 다식 재료비, 물품구입 등
	전통탁본체험	2,000,000	탁본구입, 재료구입 등
	무대설치비	2,000,000	무대, 음향, 부스, 의자 등

5) 도전! 동구벨 사업

(단위: 원)

사업명	계	국비	산출기초
	5,000,000	5,000,000	
도전! 동구벨	회의 및 심사	1,000,000	심사 및 회의비
	행사진행	1,500,000	우편료, 중식비, 화물비 등
	물품구입	1,500,000	상장, 시상품, 상패제작 등
	홍보 및 기록	1,000,000	현수막, dvd 제작

여 백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하 세 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하세용

1

사업목적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해 문헌·현장조사
시흥시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증진
- 빠르게 변모하는 관내 자연마을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기록화
시흥시 지역단위 공간의 과거와 현재 재조명

2

사업내용

대상지역

❖ 신천동복음자리 중심 2~3개소

사업내용

❖ 문화자연체험학교, 한 개, 제정구기념사업회, 작은자리 등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연계 참여방안 마련

❖ 실무조사단을 구성, 조사대상 마을에 대해 기록자료, 구술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 및 과거사에 대한 자료발굴 집적

❖ 향후(2013) '마을사 자료집' 관련 단행본으로 출간을 위해 보고서 작성

3

선정이유

복음자리마을

❖ 1970년대 후반 서울 양평동 판자촌 철거민 이주

❖ 빈민운동가 故 제정구, 정일우 신부 주도

❖ 시흥시 신천동 33번지 일대 조성(3천평)

❖ 도시빈민 공동체 마을로 생산협동공동체제 구축한 마을공동체 모범사례

“나무가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 뻗고 싶어도 이 세상 어디가의 흙속에 설 자리가 없다면 나무는 존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사람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기영역, 즉 사람으로서의 제자리를 만들고 우리가 이전에 땅 위에 먼저 서야 하고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께다.” - 제정구.

4

시흥문화원
Siheung Culture Center



복음자리 주택 건축모습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



복음자리마을



복음자리마을 조성
전과 후



5

시흥문화원
Siheung Culture Center

복음자리마을공동체



복음단오제



복음장학회



6

사업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6월	조사단 구성	조사단 구성 및 대상마을 확정
7월~10월	자료수집	현장 조사 및 구술 채록
11월~12월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및 정리제작

7

기대 효과

시민의 향토에 함양을 위한 지역 전통문화계승과 보전

시흥시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우리마을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계층간 소통과 이해 증진

마을 공동체 회복

시흥시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초자료

8

전망과 과제

전망

❖ 마을을 조사기록함으로써 공동체회복과 도시개발의 모델 제시

❖ 시흥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과제

❖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의 지속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예산반영)

❖ 문화원 인력구조 개선과 확충

시흥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시흥문화원



감사합니다.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과 전망



하 세 용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목차

I 사업계획

II 전망과 과제

I 사업계획

→ 1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 2 사업기간 : 2012년

→ 3 사업개요

1) 추진배경

현재 시흥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마을이 이미 사라졌거나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집적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수도권 지역 여타 시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추진목적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해 문헌, 현 장조사(인터뷰),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 한다.

아울러 빠르게 변모하는 관내 자연마을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기록화를 통해 시흥시의 지역단위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 하고, 천편일률적인 수도권 도시개발 형태를 탈피한 롤모델을 제시한다.

3) 대상지역

1차로 신천동 복음자리마을 중심, 2~3개소 선정한다.

4) 선정이유

복음자리마을은 1970년대 후반 서울 양평동 판자촌 철거민들을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님이 주도하여 시흥시 신천동 33번지 일대 약 3,000평의 부지에 집단 이주하여 건설한 도시빈민 공동체 마을이다.(약 170여 세대) 이곳에서 생활공동체가 실현되었으며 생산협동공동체제를 구축하였고, 마을공동체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나무가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뽐고 싶어도 이 세상 어딘가의 흙위에 설 자리가 없다면 나무는 존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사람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기영역, 즉 사람으로서의 제자리를 만들고 누리기 이전에 땅 위에 먼저 서야 하고 설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저다.”
-제정구

5) 사업내용

가) 문화자연체험학교, 훈개, 제정구기념사업회, 작은자리 등 관내 비영리 민 간단체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연계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나) 실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대상 마을에 대해 기록자료·구술자료·사진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 및 과거사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는 한편 집적한다.

다) 지역사에대한 전문가를 통해 집적된 자료를 고증하고 해석, 평가한다.

라) 이를 통해 향후(2013년) '마을사 자료집' 관련 단행본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 만든다.

→ 4 사업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6월	조사단 구성	조사단 구성 및 대상마을 확정
7월~10월	자료수집	현장 조사 및 구술 채록
11월~12월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및 정리제작

→ 5 사업기대효과

- 시민의 향토애 함양을 위한 지역 전통문화계승과 보전에 기여한다.
- 시흥시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한다.
- 우리마을의 역사를 이해함으로 계층간 소통과 이해 증진한다.
- 마을 공동체 회복한다.

→ 6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서

항목	사업비			산출근거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0,000	10,000	0		
인건비	6,280	6,280		1,570,000원×4인=6,280,000원 ※ 201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의 연구보조원 인건비 적용 1,494,604원×7개월×15% =1,569,335원	
경비	1,600	1,600		조사여비 20,000원×4인×20회=1,600,000	
제작비	1,000	1,000		보고서 제본비 1식 1,000,000원	
진행비	1,120	1,120		문구, 회의비, 기타 진행비 1,120,000원	

II 전망과 과제

도농 복합도시인 시흥시는 수도권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옛 마을공동체의 자취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사라져가는 자연 마을에 대한 연구 및 자료집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 훗날 후세들에게 시흥의 자취를 설명할 길이 없을듯하여, 문화원 형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듯하나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의 두레정신을 실천하였던 복음자리 마을을 조사 기록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도시개발에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많은 지역이 겪고 있는 것처럼 급속한 개발과 함께 원주민 이탈과 이주민의 대거유입으로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미비해지는 결과가 많은 부분 초래되는 데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는 지역에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의 공고화 내지 확장을 위해서는 원주민문화에 이주민의 결합이 갈등없이 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한다. 따라서 원주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은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진행될 시흥문화콘텐츠사업에도 기초 자료 및 사전 연구사업이 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맞가지 사후 전망과 그 과제를 살펴본다.

→ 1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의 지속성 확보

현재 시작된 사업은 초기 선정 3개 자연마을에 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그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자연마을의 변화는 현 사업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흥시의 과제이자 우리 시흥문화원의 역할이다.

→ 2 시흥문화콘텐츠 기반

시흥시에서는 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그 역량을 키워가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관심이 된 제주올레, 지리산둘레길, 강화나들길처럼 우리 시흥시도 '늬내길'이라고 하여 시흥시의 농촌과 어촌의 자연환경, 관곡지, 농곡동선사유적과 같은 역사인문환경이 어우러진 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 늬내길은 그 특성에 따라 자연학습 및 역사문화 학습 등을 할 수 있어 다른 여타 시도의 길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시흥시의 자랑이다.

더욱이 늬내길은 수도권에 있는 강화나들길보다도 접근성이 좋아 여가 선용을 즐기는 현대인에게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시흥시 전반의 문화사업에 있어서 우리 자연마을 조사사업은 그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현 사업에 앞서 더 많은 사업과 특색사업을 하고자 하였을때 그 선연구활동이된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늬내길과 같은 사업에서 그 길가를 지나는 수많은 마을과 마을, 곳곳에 수많은 이야기가 발굴되어 단순한 길걷기를 넘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며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은 물론 이들 장소에, 자연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한다면 더욱 알찬 늬내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는 이와 같은 사업을 보완하고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기초작업이며 이는 미래 시흥산업의 전환에 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6~70년대 고도산업화사회를 거쳐 현재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보산업 등으로 옮겨가고 또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굴뚝 없는 산업의 육성은 바로 문화에 있고, 그 문화를 대중사회와 결합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중소비로 진척시킨다면 미래 우리의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3 과제

개발에 따른 자연마을의 변화와 실전의 문제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다른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에 따라 사라지는 마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무형의 자산이 그대로 사라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에 대한 조사는 시흥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유는 조사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예산집행의 미비에서 그 어려움이 있다.

지방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운영이 되는 지금 많은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처럼 지역현황에 따라 그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의 담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에 대한 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집적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문화원 인력구성상 소수의 적은 인력이 종사하고 그마저도 행정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구조 역시 인력충원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문화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원 사업은 마을조사 뿐 아닌 지역유무형의 자산과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대중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것을 담당할 인력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원이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인력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여 백



경기도 지역 문화원형 토론회
모락산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오 세 진 [의왕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 지역 문화원형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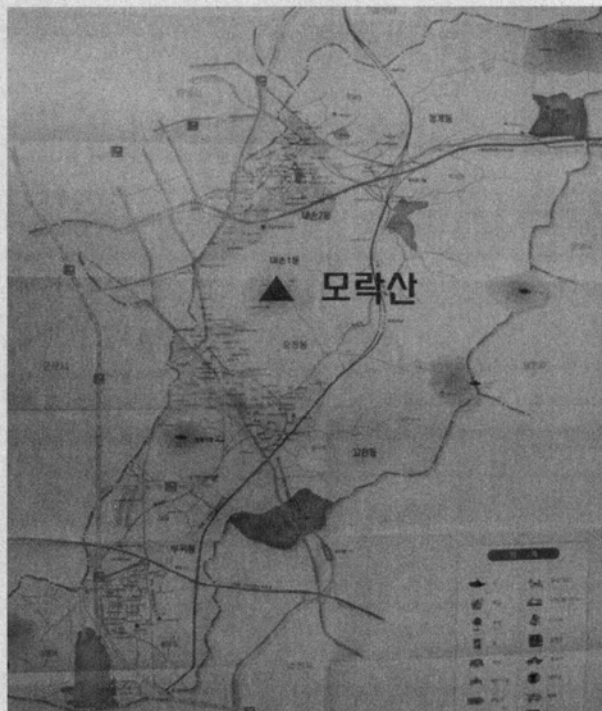
모락산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발 표 자 : 의왕문화원 오 세 진

1. 추진 배경

- 의왕은 전체 면적의 약 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모락산은 의왕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85m 높이의 산으로 2011년 한해동안 약52만명이 이용하는 곳임.
- 모락산은 세종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의 전설과 연관되어 있으며, 임영대군의 묘와 사당, 종택이 모락산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
- 한성기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락산성’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모락산 전경 사진



2. 추진 목적

- 모락산과 임영대군을 배경으로 한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 코스체험 등을 통하여 의왕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모락산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
- 현재 의왕시에서 모락산성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장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모락산성의 존재와 가치 및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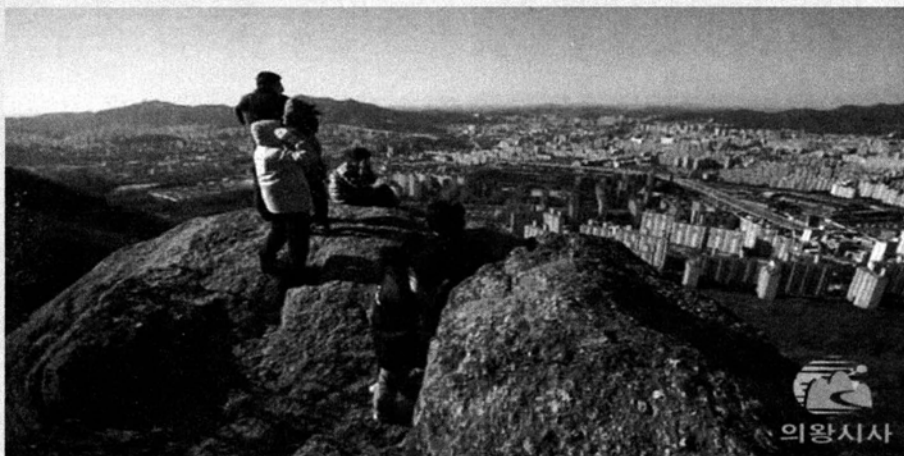
3.사업 내용

○ 모락산과 임영대군 전설에 대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물 제작

➢ 모락산의 지명 유래

임영대군이 세조의 왕위찬탈에 충격을 받아 매일 이 산에 올라 조정을 걱정하며 서울 궁궐을 향해 “망궐레”를 올려 ‘서울을 사모하는 산’이라는 뜻으로 ‘사모할 모, ‘서울이름 락’으로 하여 ‘모락산(慕洛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이 산에서 사람들을 몰아 죽여서 산 이름을 ‘몰압산(歿壓山)’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 인 암



임영대군이 서울을 향해 망궐레를 올리던 곳

➤ 모락산 경일암(擎日庵)터

임영대군이 돌아가신 이후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경일암의 옛터.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임영대군은 형의 그릇됨을 탄식하면서 이곳으로 물러나 매일 산에 올라가 조정을 걱정하였는데 대군이 해를 맞이하였던 자리에 세워진 암자라 하여 경일암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 일 암 터



○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 임영대군 묘역, 사당, 모락산 정상(사인암)



○ ‘모락산성’ 발굴 및 복원과정과 함께 예술적 문화콘텐츠 개발

- ‘모락산성’

한성백제기에 축조된 백제산성으로, 모락산 정상에 위치한 둘레 약 900m의 테피식 산성이다. 기초조사에서 백제시대의 토기와 호(壺)·옹(甕) 등의 향아리류가 출토되었으며, 석축이 확인된다. 4~5세기경 풍납토성 배후 방어를 위한 도성 방어체를 구성하는 경기 서남부 지역 관방체계의 중요한 거점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 락 산



북벽 외벽 뒷채움석



북동회절부 성벽

모 락 산 출토 유물



백제 토기



단경호

4. 추진 방법

- 협의체 구성
 - 문화원, 시, 향토사학사, 연극협회, 국악협회, 임영대군 종중
- 스토리텔링 및 공연물, 예술작품 제작
 - 문화원, 연극협회, 국악협회, 향토사학사
-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 문화원, 시, 종중, 향토사학자 등과 협의하여 조성

5. 활동 방안

- 연극 공연
 - 매년 10월 둘째 주 의왕백운예술제에서 공연
- 산행코스 운영
 - 해설사가 동행하는 코스로 월 1회 시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탐방 산행을 실시

6. 추진계획

1) 단계별 사업계획

- 1단계 -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협의
- 2단계 - 스토리텔링, 공연물 및 예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 3단계 -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2) 추진일정

- 2012년도~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2013년도~ 예술적 문화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제작
- 2014년도~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7. 기대효과

- 예술 작품 및 공연 관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로 알고 의왕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산행코스운영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모락산 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한 문화예술콘텐츠개발



오 세 진 [의왕문화원 사무국장]

→ 1 추진배경

의왕은 전체 면적의 약 88%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모락산은 의왕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85m 높이의 산으로 2011년 한해동안 약 52만명이 이용하는 곳임

모락산은 세종의 넷째아들 임영대군의 전설과 연관되어 있으며, 임영대군의 묘와 사당, 종택이 모락산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

한성기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락산성'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못함

→ 2 추진목적

모락산과 임영대군을 배경으로 한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 코스체험 등을 통하여 의왕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모락산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함

현재 의왕시에서 모락산성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장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모락산성의 존재와 가치 및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 3 사업내용

1) 모락산과 임영대군 전설에 대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물 제작

● 모락산의 지명 유래

임영대군이 세조의 왕위찬탈에 충격을 받아 매일 이 산에 올라 조정을 걱정하며 서울 궁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려 ‘서울을 사모하는 산’이라는 뜻으로 ‘사모할 모’, ‘서울이름 락’으로 하여 ‘모락산(慕洛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이 산에서 사람들을 몰아 죽여서 산 이름을 ‘몰압산(歿壓山)’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모락산 경일암(擎日庵)터

임영대군이 돌아가신 이후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경일암의 옛터.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임영대군은 형의 그릇됨을 탄식하면서 이곳으로 물러나 매일 산에 올라가 조정을 걱정하였는데 대군이 해를 맞이하였던 자리에 세워진 암자라 하여 경일암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2)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 임영대군 묘역, 사당, 모락산 정상

3) ‘모락산성’ 발굴 및 복원과정과 함께 예술적 문화콘텐츠 개발

● ‘모락산성’

한성백제기에 축조된 백제산성으로, 모락산 정상에 위치한 둘레 약 900m의 테피식 산성이다. 기초조사에서 백제시대의 토기와 호(壺)·옹(甕) 등의 향아리류가 출토되었으며, 석축이 확인된다. 4~5세기경 풍납토성 배후 방어를 위한 도성방어체를 구성하는 경기 서남부 지역 관방체계의 중요한 거점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4 추진방법

● 협의체구성

문화원, 시, 향토사학사, 연극협회, 국악협회, 임영대군 중

● 스토리텔링 및 공연물, 예술작품 제작

문화원, 연극협회, 국악협회, 향토사학사

●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문화원, 시, 중증, 향토사학자 등과 협의하여 조성중

→ 5 활동방안

● 연극공연

매년 10월 둘째 주 의왕백운예술제에서 공연

● 산행코스운영

해설사가 동행하는 코스로 월1회 시민 또는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탐방 산행을 실시

→ 6 추진계획

1) 단계별 사업계획

1단계 -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협의

2단계 - 스토리텔링, 공연물 및 예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3단계 -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1) 추진일정

2012~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2013~

예술적 문화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작업 및 공연제작

2014~

역사와 함께하는 산행코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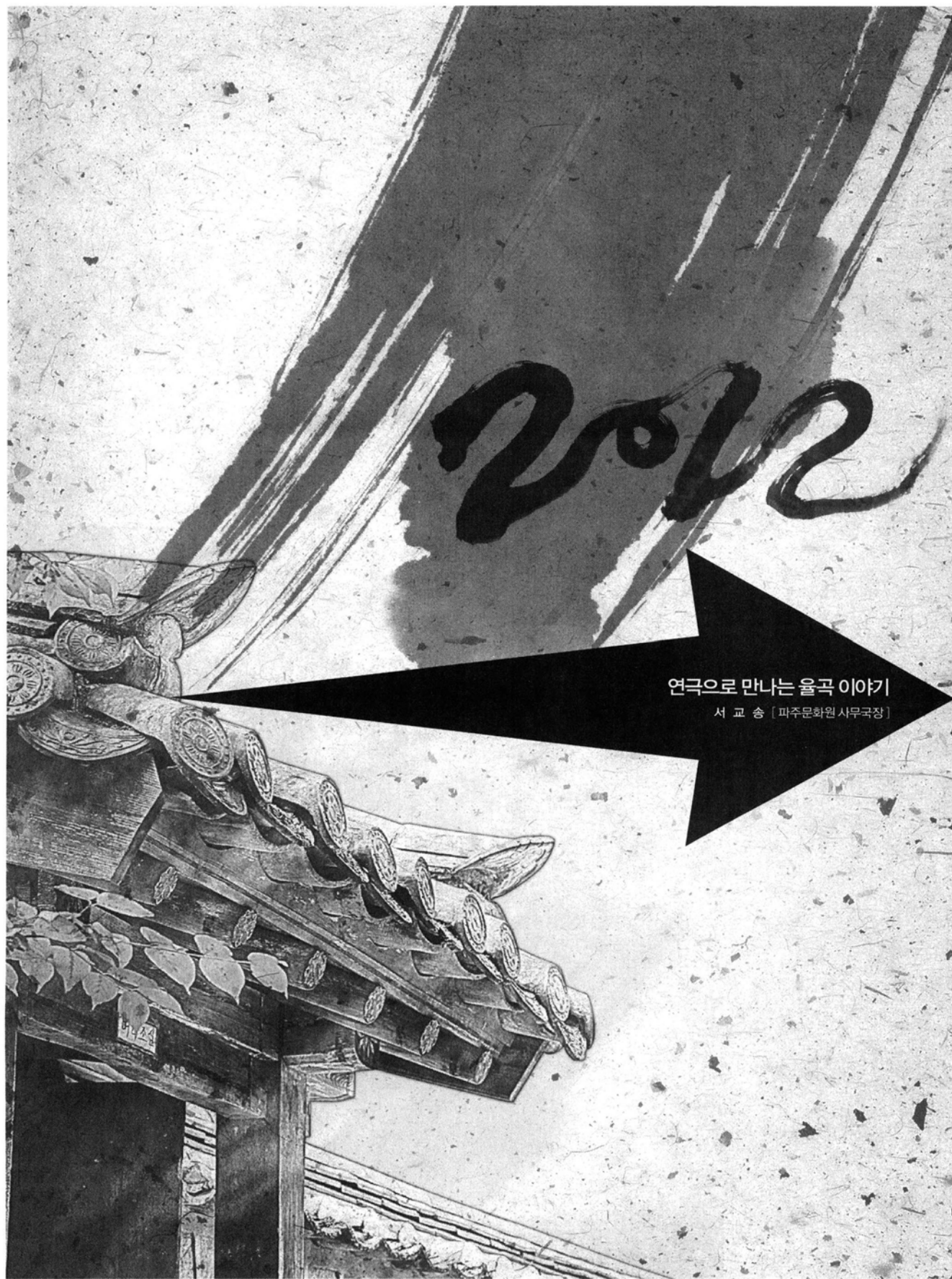
→ 7 기대효과

● 예술 작품 및 공연 관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로알고

의왕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산행코스운영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여 백



연극으로 만나는 울곡 이야기

서 교 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파주문화원

율곡 선생과 파주

✽ 파주는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本鄉)

✽ 율곡선생의 발자취

- 율곡리 마을(號 栗谷의 유래)
- 화석정(팔세기, 임진왜란 관련 설화)
- 자운서원(畿湖學派의 聖地)
- 율곡 선생 묘소
- 신사임당 묘소

율곡리 마을

- ❁ 율곡 선생의 본가(本家)가 자리잡은 마을
- ❁ 밤나무가 많아서 율곡(栗谷)이라 호칭
- ❁ 행정구역 상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 ❁ 율곡선생의 선대 묘소와 화석정이 위치



화석정(花石亭)

- ❁ 율곡선생이 즐겨 찾던 임진강변의 정자
- ❁ 팔세시와 임진왜란 관련 설화로 유명
-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1호



자운서원(紫雲書院)

- ✽ 율곡선생, 사계·남계 선생을 모신 서원
- ✽ 1615년 지방유림 창건, 사액서원
- ✽ 경기도기념물 제 45호



율곡선생 묘소

- ✽ 율곡 선생과 부인 곡산 노씨 묘소
- ✽ 경기도기념물 제 15호



신사임당 묘소

- ❁ 이원수 공과 신사임당 묘소
- ❁ 경기도기념물 제 14호



율곡문화제

- ❁ 율곡 선생을 기리는 전통문화 축제
- ❁ 매년 10월 2주차 주말 개최
- ❁ 율곡선생 추향제, 학술회의, 유가행렬 재연 및 시민 길놀이, 장원급제 퀴즈대회, 전통 혼례, 마당놀이, 전통다례 시연, 백일장, 민속놀이 한마당 등



율곡문화제



2011. 10.7(금) ~ 10.8(토)

율곡선생유적지 / 시민회관 / 문산행복센터

주최 • 파주시
주관 • 파주문화원, 제24회 율곡문화제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율곡 선생

※ 파주문화원형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문1)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82응답, 복수응답 허용)

1위	2위	3위	기타
율곡선생유적지 63명(35%) *	임진각관광지 27명(15%)	파주출판도시 25명(14%)	파주삼릉, 헤이리, 용미리석불 등

문2) 파주를 대표하는 역사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10응답, 복수응답 허용)

1위	2위	3위	4위	기타
율곡 선생 113명(54%)	황희 정승 42명(20%)	신사임당 22명(10%)	윤관 도원수 20명(10%)	성혼선생, 성현선생, 의성허준, 정태진선생

율곡선생과 파주

역사

- 우계, 구봉 등과 교류하며 학문적 성취를 이룬 배움의 터전
- 本郷이면서 永眠의 장소로 선생의 발자취가 짙게 배인 곳

정신

- 위대한 선현의 후손이라는 자긍심과 시민연대감의 고리
- 文鄉 坡州 학문의 고장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바탕 제공

산업

- 역사문화 유적지 형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요인
- 문화예술적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다면적 가능성 내재

문화원형의 활용

목적

- 畿湖學派의 거두인 율곡선생과의 예술적 만남을 통해 선생의 삶을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콘텐츠로 활용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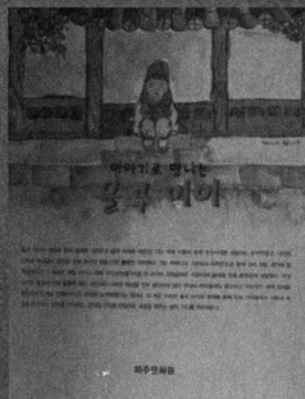
- 국가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치가로서의 치열한 삶을 담은 정극
- 실학적 교훈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로 친근하게 풀어내는 마당극

활용

- 파주시 율곡문화제 정례 공연, 지역 전통문화행사 공연 참여
- 경기도 단위 문화행사 공연, 전국 단위 연극제 작품 출품 등

파주문화원

- ❁ 1967년 지역문화 창달을 기치로 창립
- ❁ 율곡선생유적지 수탁 운영(1999~ 현재)
- ❁ 율곡문화제 개최(24회)
- ❁ 율곡 관련 연구 및 도서 발간



파주 연극협회

- ❁ 평화 사랑 가족 연극제 주최(2010~현재)
- ❁ <놀부전> <심봉사의 딸> 등 공연
- ❁ 국악뮤지컬 '율곡 이이' 공연
- ❁ '콩쥐와 팥쥐엄마' 공연
- ❁ '72시간' 공연
- ❁ 문화바우처 기획전환사업
- ❁ 찾아가는 문화활동
- ❁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 ❁ 파주예술제 등



문화원형 활용의 바탕과 전개

- ❁ 율곡문화제 개최
- ❁ 율곡사상 국제학술회의
- ❁ 전국율곡서예대전 개최
- ❁ '큰 스승 율곡 이이의 삶과 사상' 발간
- ❁ '이야기로 만나는 율곡 이이' 발간
- ❁ 문진, 병풍 등 기념상품 개발
- ❁ 율곡수목원 개장
- ❁ 국악뮤지컬 '율곡 이이' 공연
- ❁ 뮤지컬, 무용 작품 준비中



예술적 활용에 대한 접근과 한계

❁ 국악뮤지컬 '율곡 이이' 절반의 실패



- ❁ 빈번한 음향 사고, 세련되지 못한 배경 그래픽
- ❁ 어린 관객들의 눈높이를 벗어난 이야기 전개
- ❁ 교훈적 삶의 극화화를 위한 스토리 구성의 미약

한계를 넘어서는 멈추지 않는 발걸음

❁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스토리의 재구성

- 관람대상에 따른 스토리 라인 구성
 1. 현대의 사회문제와 선현의 가르침을 엮어내는 정극
 2. 효와 가족애, 애국애민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마당극

❁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협업 체제의 강화

- 사업 네트워크 공고화
(문화원, 연극협회, 동화작가, 역사학자, 교육자, 행정공무원 등)
- 예술 전문 멘토들과의 협력 작업
(극작가, 연출가, 시스템 전문가 등)

❁ 쇼케이스와 리뉴얼

- 완성도 높은 공연을 이끌어내기 위한 쇼케이스 진행
- 쇼케이스를 통한 장단점 진단 및 작품 반영

문화원형 활용의 기대 효과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지역 문화관광서비스 자원 확보



시민과 문화단체, 예술단체를 잇는 지역문화 인프라의 구축 매개



전통문화의 가치를 담은 문화적 예술적 교육적 장치로의 지속적 활용



지역 전통 문화예술 발굴, 발전의 시금석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감사합니다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서 교 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 연극으로 만나는 율곡 이야기

기 간 : 2012. 5 - 2013. 10

장 소 :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율곡선생유적지

주 최 : 파주시

주 관 : 파주문화원, 파주연극협회

후 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파주예총

→ 2 기획의도

1) 추진배경

율곡선생은 익히 알려진 대학자이면서 정치가이시다. 학문적 성취를 고고한 문장속에 가두지 않고, 세상의 경영에 바치고자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불같은 열정으로 짧은 생을 살다간 선생은 분명 대한민국의 스승이며, 경기도의 자랑이고, 파주인들의 정신적 일체감을 매개하는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연구논문이나 역사서에 문헌 선생의 치열한 삶을 연극, 무용, 음악 등 예술을 통해 세상으로 이끌어 내, 현실과 유리(遊離)된 역사가 아닌 시공을 초월해 함께 호흡하고 이해하고 시민들의 삶의 멘토(mentor)로 역할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한다.

지역 문화원형의 전승과 확장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단체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유도한다.

2) 추진목적

경기도의 역사인물이자 기호철학의 태두인 율곡 선생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역사속에 묻혀있는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고, 도민들의 정신적 연대감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사업내용

공연장르 : 연극(국악 뮤지컬)

작 품 명 : "격몽(擊蒙)" - 몽매함을 일깨우다 -

작품 소개

주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필요한 통찰의 리더십」

기획 및 제작의도

나라가 혼란스럽다. 반세기 동안 계속된 좌우 격돌의 이념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이 있고,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로 계층 간의 골이 깊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백 년전 이 땅에 살았던 '율곡 이이'를 주목한다. 율곡 이이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은 거의 판박이라 할 만큼 흡사하다. 그는 당대에 결코 성공한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이지만, 오백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민족의 위대한 스승으로 남아 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 충실했고 그에 따른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었고, 정치의 중심도 '사람'이었다.

편협과 독선에 빠진 관료들이 봉당을 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

을 때, 그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 온 인물조차 나라를 위해 중요 직책에 천거하는 배포를 보았다. 동시에 자신의 애제자 마저도 인사에서 배제시키는 엄정함을 보이기도 했다.

적과의 동침을 서슴지 않으며 동서 양 세력의 막후 조정자로 맹활약하는 동안에는 동인(東人), 서인(西人)간의 갈등이 극심함에도 나라에는 큰 변고가 없었다. 기축옥사(己丑獄死)의 피바람이 불고 임진왜란이라는 병화가 닥쳤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뒤였다. 이이라는 중재자의 부재가 몹시 뼈아프게 다가오는 역사적 순간이다.

울곡은 시대정신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이이의 날카로운 현실 진단과 해법, 인간애에 바탕을 둔 통치 철학은 정치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이 시대에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 세계화 및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울곡은 이미 오백 년 전에 제시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스승이신 울곡 이이는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 원형으로 파주에서는 매년 10월에 울곡문화제를 올려 큰 스승의 유덕을 추앙하고 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활자로만 존재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오백년 전 선생의 영혼을 다시 부활하고자 「격몽」을 무대작품으로 선보이고자 한다.

등장인물

울곡이이

이번(울곡의 둘째 형)

노씨(울곡 이이의 아내)

송강 정철

토정 이지함

임꺽정

류성룡

성혼

구봉 송익필

선조

이봉정(내관)

박근원(도승지)

김포덕(울곡이이 참모)

김찬돌(울곡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는 말동무)

전체 줄거리

명종 10년(1555년), 오동나무집에 모여 시국토론을 하고 있는 어숙권과 정철, 성혼, 송익필은 조선 정부의 무역선 감축 조치에 반발해 남부지방을 침범한 왜구들의 얘기를 주제삼아 토론이 한창이다. 전라도 담양에 가족을 두고 있는 정철이 놀라 어안이 병병해진 표정 앞으로 관군이 출병한다.

농민군에게 말을 빼앗긴 노인은 울분을 토한다. 보다 못한 이이는 농민군에게 고함을 친다. 징병된 농민군은 나라에서 창, 칼도 없이 알몸으로 나가 싸우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할 말은 주상께 고하라 한다. 나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워진 군적제도 '방군수표'로 인해 부패를 오히려 조장해 힘없는 민초들의 고충을 주고 있다는 걸 이이는 보고 있다.

명종 12년(1557년), 아버지 이원수의 채근을 못 이기고 마지못해 성주목사 노경린의 딸과 혼례를 오린다. 막상 혼례를 올린 후 5살 어린 부인에게 이이는 폭 빠진다. 부인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미인이며 웬만한 유생보다 사서(四書)를 많이 읽어 막힘이 없으면 지덕체를 겸비했으며 어머니 신사임당과 흡사한 구석이 많아 어린 신부에게 온갖 정성을 듬뿍 쏟는다.

명종 14년 (1559년), 양주 백정 출신 임꺽정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파주 감악산에 근거지를 두고 황해도, 평안도 일대의 관아, 양반집을 습격한다. 양민들의 도움으로 신출귀몰 등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한양 조정을 불안하게 한다.

이이와 성혼은 송익필의 생일에 초대받아 가던 길에 검문을 하는 교하길목에서 임꺽정의 무리를 만난다. 무탈하게 그들을 뒤로 한 이이는 조정에 분노한 온 백성이 임꺽정이란걸 알고 출사의 결심을 다진다.

한양을 떠나 충청도 개천으로 내려간다는 토정 이지함과 율곡은 한강에서 막 잡아 올린 잡어를 안주삼아 술을 나누며 이지함이 이이를 부른 까닭을 털어 놓는다.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 하늘도 질투를 느낀다며 건강을 살피라며 모친 신사임당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간이 좋지 않은 것이 집안 병력이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이이가 오래 살아야 우리 조선백성이 살 희망이라도 가질 것이라 한다.

부인 노씨는 참도 김포택과 찬거리를 구하고자 장에 간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 변변한 옷 한 벌 없는 딸 난영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으면 하고 포목상점에서 망설이고 있으니 눈치 빠른 김포택이 아기씨에게 옷 한 벌 해주라며 바람을 잡는다. 사치를 좋아하지 않는 서방을 생각하며 마음을 접는 부인 노씨에게 이이를 20년을 모셔온 김포택이 나오리는 당신을 위해 쓰는 건 싫어해도 자식을 위해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부추긴다. 노씨는 마음이 흔들려 색동원단을 사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간다. 멀리 집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 잔걸음으로 다가가니 어린 몸종이 뛰어 나오며 난영이가 죽었다며 바닥에 주저 앉는다.

선조 2년 (1569년), 임금은 이날 처음 면전에서 이이를 본다. 그는 자그마하고 마른 체구에 피적적해 보이기까지 한 불품없는 행색의 이이에게 끌린다. 게다가 누구나 욕심을 내는 흥문관 교리의 자리를 효심 때문에 포기하려 하는 그 마음조차 임금에게는 매력적이다. 임금은 권력과 힘 앞에 추해지는 인간의 군상을 수없이 봐왔다. 이이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이전에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점을 느낀다.

선조 3년 (1570년), 마포 나루터 보부상들이 모여 있고, 걸인들이 구걸을 하고 있다. 한 여인이 삿갓을 쓴 이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한다. 여인의 손에 주먹밥을 건네는 이이를 보고 보부상 일행 중 하나가 욕을 한다. 여인이 물러가고 걸인들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보부상의 우두머리가 주먹밥 하나씩을 걸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한다. 보부상 상인들은 투덜거리며 임금을 원망한다.

임금과 여러 경연관들이 모인 첫 이이의 조강이 열렸다. 사춘기에 들어선 선조가 궁녀들과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고 즐기고 있다. 이이는 선조임금에게 “전하께서 치세(治世)에 성심을 다하신다면, 평범한 필부가 전하께 말씀을 올린다 해도 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그럭저럭 지내시면서 뜻도 없이 형식 갖추기만 일삼는다면, 『공자』, 『맹자』를 품에 끼고 살면서 그들이 날마다 좋은 말씀을 올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이가 첫 강의에서 날린 직격탄에 홍당무가 된 임금의 용안에 당혹감이 가실 줄을 모른다.

이를 빌미로 지글지글 안에서 끓고 있던 신구 세력 간에 내분이 경연에서 표면화 된다. 노신을 대표하는 영상 이준경이 “아무리 임금이 어리다고는 하나, 임금에게 체통과 위엄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젊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이이를 중심으로 한 젊은 신하들은 “노신들이 임금의 눈치만 살피며 보신주의에 빠져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비난을 한다.

이런 지경에도 임금은 이이를 사랑하면서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자신의 이상적인 인물로 동경하고 흠모했다. 계속되는 신구 세력 간에 내분으로 임금은 이이의 사직 요구가 무척 꺼림직 했다. 그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이이가 너무 앞서 나가자, 비교적 허물없이 지냈던 유성룡, 이산해와 같이 명망 있는 인사들까지 언제부터인지 이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선조 15년(1582년) 이이 나이 47세 정월 이조판서로 임명. 8월 형조판서 12월에 병조판서에 임명된다.

율곡은 공안의 개정을 통해 백성들의 형편에 맞추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형편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으며, 지나치게 많은 행정지역을 병합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현을 병합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지방 장관을 가급적 자주 바꾸지 말고 오래도록 근무하게 하여 일의 집중도를 높이자고 하였다. 이 같은 이이의 행정 개혁안은 선조 7년 이이의 나이 39세 때 우부승지 시절 임금에게 올린 「만언봉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시국에 대한 이이의 진단과 처방에는 나라 개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아울러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임금에게 고한다.

두 번에 걸친 북방 오랑캐의 전란을 승리한 병조판서 이이를 두고 동인들은 파주촌놈이라 비아냥댔던 이이가 승천하는 용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승진하는 것에 배가 아파 질투심이 극에 달한다.

조선의 국방력이 약하다는 것을 20대 부터 파악하고 있던 이이는 선조임금에게 서얼허통법(庶孽許通法)을 세우기를 청한다. 세작의 첩보를 입수한 이이는 북방의 적만 적이라 할 수 없음으로 남으로 왜군을 견제해 십만정병을 양성 할 수 있다고 고한다. 서해 유성룡은 임금에게 전란을 앞두고 있지도 않는 태평성대인 작은 나라에 십만의 대병이 필요치 않다고 반대를 한다.

서얼허통법(庶孽許通法)과 십만양병설로 동인의 행동대장인 도승지 박근원은 눈에 가시인 이이를 탄핵하는 상소문과 사람을 부쳐 감시와 뒷조사를 지시한다.

그러나 국정에 눈을 뜬 선조임금의 사랑과 절친 우계성혼 상소문이 정국을 강타한 돌풍이 되어 부동적인 신하들과 성균관의 유생들 또 팔도의 유생들이 동참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동인들의 횡포에 분개한다.

이이를 탄핵하고 권력 독점을 영구화 하려던 동인들의 욕망은 결국 이이라는 큰 산맥을 넘지 못해 좌초된 십년 세월 조정을 호령

한 동인들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여명을 타고 서인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중심인 이이의 이른 죽음으로 서인 정권 출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크게 퇴색된다. 병조판서 직에서 물러난 지 백일 만에 이이는 다시 이조판서의 부름을 받고 출사하나 평생 그가 주장하던 혁신과 개혁의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겨둔 채 이듬해 정월에 지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둔다. 정철은 사랑하는 친구 이이의 부고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치를 떤다. 그는 이이의 죽음은 거의 반은 타살이라며 탄식한다.

→ 4 활용방안

2013 율곡문화제 전야 공연(매년 정례공연 추진)

장단콩축제, 개성인삼축제 등 지역 공공문화행사를 통한 공연
경기도 단위 문화행사에 공연 추진

전국단위 연극제 작품 출품

→ 5 추진 계획

1) 단계별 사업계획

● 사업 네트워크 구축

파주문화원과 파주 연극협회를 중심으로 동화작가, 역사학자, 교육자, 행정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은다.

● 사업진행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과 협력 작업으로 진행한다. 1차로 정리된 1차 원고를 가지고 역사학자, 문인, 지역유림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

2차는 극작가 중심의 멘토 작업으로 윤조병(극작가), 최송림(극작가), 선옥현(극작가, 연출가), 박장렬(극작가, 서울연극협회

장)등 극작가들의 전문성을 동량한다.

3차로는 희곡을 바탕으로 중진 이상의 연출가(김태수, 김성노, 남궁연)들의 무대작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동량한다.

● 쇼케이스와 리뉴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식 개막 전(前)에 학생과 문화 소외계층, 문화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쇼케이스의 진행을 통해 장단점을 진단하고, 작품에 반영한다.

2) 추진일정

- 사업계획안 수립: 2012년 4월 중
- 세부 사업추진 계획 확정: 2012년 7월
- 자료수집 및 고증: 2012년 7월 ~ 12월
- 희곡 완성 및 연출계획 수립: 2013년 1월 ~ 3월
- 캐스팅, 연습: 2013년 4월 ~ 8월
- 쇼케이스: 2013년 9월(저소득, 다문화가족 대상 공연)
- 본 공연: 2013년 10월(제26회 울곡문화제 개막 공연)

→ 6 기대효과

●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유산의 재발견과 관광자원 개발계기 마련

● 지역 문화예술 전문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예술 발굴,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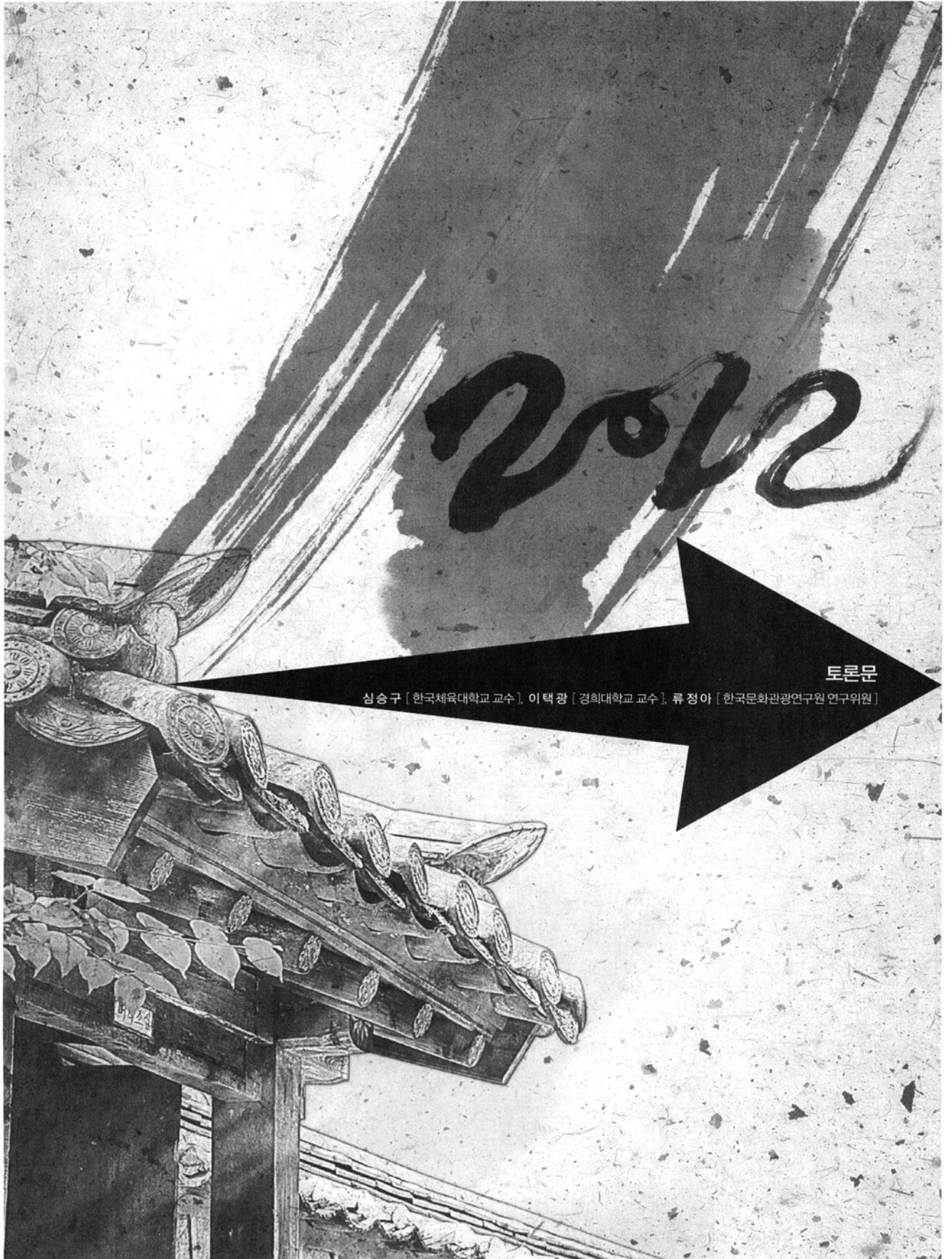
● 창작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구성 계기를 마련

● 파주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울곡문화제 등 공공 문화행사를 통하여 다년간 지속적으로 공연

→ 7 사업예산

	사업비 구분	소요예산 산출기초	예산
인건비	작가료	창작 1작품	1,500,000
	연출료	창작 1작품	2,500,000
	출연료	● A급 4명 × 800,000원 = 3,200,000원 ● B급 3명 × 600,000원 = 1,800,000원 ● C급 4명 × 500,000원 = 2,000,000원	7,000,000
	안무료	12작품 창작료	1,500,000
	조연출료	창작 1작품	1,000,000
	작곡료	신곡 창작 8곡 외 효과 창작	4,000,000
	스텝인건비	● 무대감독 1인 300,000원 ● 음향 오퍼레이터 300,000원	600,000
	기획팀 인건비	● 1명 × 500,000원	500,000
	역사고증 자료료	● 2명 × 200,000원	400,000
	소 계		19,000,000
제작비	무대제작	창작 1작품 디자인 및 제작	3,500,000
	소품제작	무대소품 일체	2,000,000
	의상제작	10벌 × 300,000원	3,000,000
	조명제작	조명 디자인 및 설치 일체	1,500,000
	음악제작	신곡 창작 8곡 및 BGM 작곡, 녹음 등	3,000,000
	음향장비 임차	믹서(20채널 이상), 유선mic 3ea, 핀마이크 10ea 등	2,500,000
	소 계		15,500,000
진행비	연습실 대관	50일 × 30,000원	1,500,000
	연습식비	50일 × 15명 × 6,000원	5,400,000
	소 계		6,900,000
합 계		41,400,000	

여 백



토론문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원형 사업에 대한 최종 의견서

이택광 [경희대학교 교수]

총평

전체적으로 기획서는 대동소이하게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재적 의미에서 스토리텔링 작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원형으로 다양한 파생효과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각 지역성에 근거하는 것도 좋지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성이 해당 도시의 특성이라면, 보편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거나 긴요한 문제들을 지역의 특성에 녹여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칙 하에서 다양한 원형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보완된 기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사업 계획들이 훨씬 구체화되고 일목요연해졌다는 판단이다.

개별의견

1 광명문화원

청백리 도시 브랜드를 문화원형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청백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리 이원익 선생을 중심으로 놓고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를 자아낸다. 이원익이라는 청백리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광명은 많은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청렴도시 이미지화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원형을 활용할 수 있는 유산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실현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백리상을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광명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사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주민참여 방안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민신문고의 경우는 SNS가 발달한 시대에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렵다. 오히려 오리 이원익의 일대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이루어내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리 이원익의 이름을 내건 청렴을 주제로 한 백일장이나, 140자 트위터 사연공모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시흥문화원

시흥시는 급속한 경제개발로 옛것이 사라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수도권 개발도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내세운 '마을'에 대한 조사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마을'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모범적인 마을을 만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옛마을"을 복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이델베르크나 꾸리찌바처럼 독특한 개념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에 착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된 보고서에서 '복음자리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늬내길'이라는 독특한 둘레길 조성 계획도 시흥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지역 도시 문화사업의 관건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부이다. 시흥시가 자연마을을



복원하고 독특한 개념의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서울 문화권과 협력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구리문화원

왕릉군을 통해 구리의 특성을 살려내겠다는 발상이 돋보인다. 구리 역시 다른 수도권 신도시처럼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곳은 대체로 중산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문화향유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하겠다. 구리라는 이름 자체도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기에 동구릉을 중심으로 구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면 성공적일 것이다. 특히 과거의 어가행렬을 복원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실행하거나, 관광자원화한다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세 부적으로 평가하자면, 어가행렬 재현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전문가 조언에 따라 어가행렬을 고증복원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일본 지역도시처럼, 지역주민이 문화원 산하에 어가행렬 복원위원회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꾸준히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4 의왕문화원

의왕시 역시 비중에 비해서 내력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다. 전국성을 가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은 좋

지만, 전체적으로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큰 열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왕시를 대표할 만한 이미지를 무엇으로 삼을지 고민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반드시 도시 브랜드화가 과거의 역사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를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모락산성'이라는 문화원형을 발굴하고자 하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문화원형을 중심으로 전국성을 가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파주문화원

파주는 최근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생각이다. 제출한 기획서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지만, 과거의 내력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도시의 브랜드화가 과거의 스토리텔링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의 대중이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파주 자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보편성을 가진 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데, 보완된 보고서는 풍부한 파주의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명쾌한 중장기 계획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율곡이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파주의 이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고 이 부분을 '연극제'라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지역성과 전국성이 결합하는 방안으로 율곡 이이라는 문화원형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역문화원형 토론회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파주

: 연극으로 만나는 울곡 이야기

- 연극공연에 참여하는 배우는 전문배우를 활용하는지?
- 지역주민은 단순한 관람자에 머무는지?
- 이이의 죽음으로 연극이 끝이 나는 것인가?
- 연극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 어떻게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연극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보는가?

4 의왕시

: 모락산과 임명대군 전설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및 공연물 제작

- 무엇을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인가?
공연?
연극?
축제?
관광상품?
- 콘텐츠 제작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임

2 구리시

: 동구릉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개발 “동구릉 문화제”

- 예정하고 있는 표현방식이 기존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오래 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대감이 들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새로운 기획,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컨셉을 잡아내야 할 것임

5 광명시

: 오리 이원의 선생님과 청림 도시 브랜드화

- “청림”정신을 도덕교과서처럼 가르치려 할 경우에는 호응을 얻기 어려움.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 청림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코드로 변형시켜 각색하지 않으면 지극히 진부한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교육 계몽 프로그램에 그칠 수 있음

3 시흥시

: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

- 조사사업은 문화원형의 개발에서 시도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사업으로 여기서 문화자원을 추려내고 콘텐츠를 추출해서 가공해서 스토리까지 만들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를 추출해내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함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4층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실

전화 031-231-8572

팩스 031-898-7970

2012

경기도 사·군
문화유산원형
토론회

본 자료집은 '2012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